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목장교회 나눔지

[9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열왕기하 5장 14절]

나이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얼음 깨기

인생 찬양 나눔

교회행사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위로와 평안함을 준 찬양이 있나요?
어떤 찬양이었는데 그 이유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나에게 외닿는 찬양 :

이유 :

9월

- 1일 하반기 목장모임 시작
- 1일 어와나 시작
- 1,8일 이끄미 1기 교육
- 22일 진공첫 3기 시작

10월

- 13-16일 김형국목사와 함께하는 더말씀으로 가을사경회

경배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램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2.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후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소식

1. 이끄미 교육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두번째 이끄미 교육이 있습니다.
시간 : 오후 4시 장소 : 지하 다윗의 노래 문의 : 이학엽 강도사

2. 빌더스 단원 모집

1,2,3부, 수요일예배를 섬겨주실 빌더스 단원 모집합니다.
주보 내용 함께 참조하셔서 마음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

[곽미정 선교사]

기니비사우

- 기니비사우로 성경을 보내는 방법을 알아보는 중인데, 이 모든 과정이 순적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 모슬렘 축구클럽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도록
- 교회, 유치원, 초등1-2학년 과정 학교를 지으려 하는데, 이를 통해 카파라 교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한문장 큰 울림

고난은
헛되지
않아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1926-2015)
'전능자의 그늘' 저자,
에콰도르 선교사

여호와와 사자가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열왕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왜 이곳으로 보내셨을까?'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열왕기서는, 각 왕들이 시내산 언약을 순종하였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 선함과 악함을 평가합니다.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가 왜 바벨론에 오게 되었는지와 앞으로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본문에는 북이스라엘 8번째 왕인 아하시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아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열왕기상 22장 51-53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평가합니다.

1_두려움 앞에 있을 때

아하시야 왕은 사마리아 왕궁에서 난간을 걷다가 떨어져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결국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고, 이때 '병이 나을 수 있을까?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까?'를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바알세불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바알세불은 '파리의 왕'이라는 뜻으로, 태양신의 사자 혹은 질병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습니다. 아하시야는 이방인의 신을 의지하여 자신의 미래를 점치고자 하였습니다.

[사2:6]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에게 동방 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위 본문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점에 대한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 멸망 이유는, 아하시야의 행동 같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 '파리' 따위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눔] 지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무엇이 있나요?

[나눔] 때로 인생의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고 있나요? 이 자세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_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실 아하시야에게 이미 기회를 주셨었습니다.

[왕상21:24]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첫번째 기회는, 하나님께서는 나봇의 포도원을 억지로 빼앗은 아합을 향해 이와 같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합이 죽은 이후 3년의 시간동안, 아하시야에게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기회는, 난간에서 떨어진 사건입니다. 자신의 집안에 대한 예언이기에 바로 이때 아하시야는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향하여 두 차례나, '어이 하나님의 사람아, 왕이 좀 보자 하네'의 태도로 엘리야를 무시합니다. 이는 곧, 아하시야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존재적으로 부인하는 왕임을 보여줍니다.

[나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돌이키며 회복할 기회로 오늘 하루를 주셨음을 생각합니다.

[나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있나요? 아하시야와 같은 태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시다.

[삶으로 말씀 읽기]

우리의 인생에 난간에서 떨어진 상황과 같이 어려움의 순간들 수없이 직면합니다. 그 때에 우리들도, 두려움으로 힘써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 깊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두려움 앞에, 가장 먼저 누구에게 묻고 있는가?"

시험으로 두려운 순간에, 기도를 들으시며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때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약1:5)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결단]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심을 믿으며, 이 시대 가치나 우상들을 쫓지 않고 주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두려움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오늘도 이끄시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